

12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구 분	'12.1~10	'11.1~10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6,573,908	6,674,001	△1.5
농 산 물	3,376,906	3,531,025	△4.4
축 산 물	1,138,844	1,121,631	1.5
임 산 물	810,010	863,845	△6.2
수 산 물	1,245,760	1,154,973	7.9

자료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 청과물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품목	2011 한국수입	'12.1~10	'11.1~10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67	140	289	△51.6	미국	76	한국	41	멕시코	23
멜론(신선)	249	2,552	2,598	△1.8	멕시코	1,646	미국	644	한국	214
밤	2,281	2,392	2,284	4.7	한국	1,325	중국	1,055	이탈리아	11
딸기(신선)	298	2,340	2,328	0.5	미국	2,144	한국	196	-	-
토마토	532	1,552	692	124.3	미국	808	한국	554	뉴질랜드	67
겉구양배추	86	1,184	781	51.6	중국	928	한국	186	타이완	63
배추	16	19	29	△32.7	한국	11	중국	9	-	-
가지	18	12	7	77.6	한국	12	-	-	-	-
송이버섯	220	5,127	5,229	△2.0	중국	4,314	캐나다	260	한국	235
기타버섯	143	225	254	△11.5	한국	86	프랑스	46	이탈리아	46
고추속·피망속	5,916	10,547	8,393	25.7	한국	6,061	네덜란드	3,104	뉴질랜드	1,374
파프리카	5,632	10,265	8,173	25.6	한국	5,784	네덜란드	3,102	뉴질랜드	1,372
밤호박	61	6,683	6,329	5.6	뉴질랜드	3,847	멕시코	2,633	한국	102
표고버섯(건조)	111	4,609	4,871	△5.4	중국	4,575	한국	33	홍콩	1

자료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 10월 야채수입 전체동향

2012년 10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00%인 229,032톤으로 나타남. 종류별로 보면, 「신선야채」는 동76%인 64,301톤, 「냉동야채」는 동113%인 85,066톤, 「염장 등 야채」는 동96%인 8,872톤, 「건조야채」는 동111%인 4,205톤, 「식초 조제야채」는 동95%인 3,384톤, 「토마토 가공품」은 동147%인 18,529톤, 「기타 조제야채」는 동 113%인 41,994톤, 「기타」는 동 76%인 2,682톤으로 나타남. 신선야채, 염장 등 야채, 식초 조제야채 및 기타가 전년을 밑돌았으나 냉동야채, 건조야채, 토마토 가공품 및 기타 조제야채는 전년을 상회하여 전체의 야채수입량은 전년수준으로 나타남

○ 10월 신선야채 동향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165%인 687톤, 호박이 동153%인 1,371톤, 셀러리가 동138%인 799톤, 생강이 동122%인 1,641톤, 멜론이 동118%인 2,610톤, 우엉이 동116%인 5,288톤, 파프리카가 동105%인 2,360톤 등으로 나타남

우엉은 주산지인 아오모리현산이 초봄의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등의 영향으로 흉작이었던 전년보다 적은 입하량으로 나타나 수입량이 전년을 상회하였음.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가 중국 5,253톤, 제2위 대만 35톤으로 나타남

수입량이 감소한 주 품목에서는 결구양배추가 동19%인 371톤, 양파가 동62%인 25,721톤, 브로콜리가 동79%인 4,755톤, 당근 및 순무가 동84%인 7,149톤, 파가 동86%인 4,549톤, 마늘이 동91%인 1,598톤, 아스파라거스가 동98%인 1,396톤으로 나타남

신선야채의 40%를 차지하는 양파는 주산지인 홋카이도산이 풍작으로 나타나 수요가 자국산으로 이동하여 전년을 크게 감소하였음.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가 중국으로 동79%인 22,215톤, 제2위는 미국이 동25%인 3,482톤, 제3위는 오스트레일리아 24톤으로 나타남. 미국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의 감소율이 작은 이유는 중국산은 깎 양파의 비율이 높고 대기업 식품 메이커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자국산이 풍작이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브로콜리는 자국산이 순조로운 생육을 보였고 작년도의 수입량이 많았던 반동으로 전년을 크게 감소함.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는 미국 4,420톤, 제2위는 중국 336톤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품목	'12.1~10	'11.1~10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조제품	144,336	133,383	8.2	태국	72,632	중국	70,353	한국	737
정제당	1,147	1,157	△0.9	태국	455	브라질	439	한국	147
츄잉껌	89	145	△38.8	한국	42	중국	26	캐나다	11
쿠키,비스켓	6,948	6,579	5.6	미국	862	한국	689	말레이시아	623
코코아조제품	1,971	1,845	6.8	싱가폴	1,411	한국	266	태국	128
인스턴트커피	7,534	6,135	22.8	브라질	3,143	콜롬비아	1,067	한국	616
알콜음료	169,604	151,065	12.3	프랑스	61,609	한국	22,276	이탈리아	14,560
맥주	4,554	4,612	△1.3	아일랜드	1,138	벨기에	566	한국	500
쇼티닝	219	232	△5.7	말레이시아	174	한국	17	태국	15
곤약	2,311	2,171	6.5	중국	2,090	인도네시아	133	한국	87
아이스크림	2,236	1,781	25.6	뉴질랜드	1,208	호주	310	한국	251
원료인삼	4,247	1,280	231.8	중국	4,065	한국	154	타이완	22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한국산 동향

- 계육조제품(삼계탕)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737백만엔(전년676백만엔)을 기록
- 인삼은 전년대비 148.4% 증가한 154백만엔(전년 62백만엔)으로 대폭증가
- 쿠키,비스켓등 과자류는 전년대비 6.3% 감소한 689백만엔(전년735백만엔)으로 나타남
- 알콜음료 전체는 전년대비 4.9% 감소한 22,276백만엔(전년23,426백만엔) 으로 나타남
- 맥주는 전년대비 39.1% 감소한 500백만엔(전년821백만엔) 으로 나타남

□ 인삼 시장동향

○ 생산동향

- 일본의 인삼제품 생산량은 2009년 기준으로 8.3톤, 재배농가는 82농가 정도이며 경쟁력 저하로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후쿠시마(福島), 나가노(長野), 시마네(島根) 등 3개 현에서 대부분 재배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인삼제품은 후쿠시마가 가장 많은 6톤, 나가노현이 1.8톤, 시마네가 0.5톤 생산되고 있음

○ 소비동향

- 한국산은 인삼공사, 일화, 농협 등이 수입판매를 하고 있으며 인삼공사는 전시판매장 운영 등 활발.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의 수출시도가 적극적이거나 소비자의 신뢰감 부족으로 시장개척이 어려운 상황임
- 주로 엑기스 등 제품 류 중심의 시장형성. 전통적인 인삼 수입국으로서 일부 자체생산 및 수출도 있으나 소비량의 대부분을 한국, 중국 등 수입 산에 의존하고 있음
- 젊은 층의 인지도 및 구매력이 현저히 낮고 소비의 중심이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으로 제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이며 인삼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수입동향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약 30억엔 정도이며 원료삼은 중국산(전체의 98.2%), 제품류는 한국산(전체의 80%정도)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중국산은 주로 한방 및 제약원료로 수입.
- 원료인삼의 경우에는 2011년기준으로 중국산(1kg/2,944엔)이 한국산(1kg/10,643엔)에 비해 3.6배 정도의 저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하고 있는 주 요인이며 제품의 경우는 한국산 인삼의 효능으로 소비자에게 선호되어 제품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소비자의 한국산 인삼의 고정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2012년11월말현재 전년대비 12.7% 증가

한국인삼류 대일 수출동향

단위 물량 :톤, 금액 :천불

2011.1.1~11.30		2012.1.1~11.30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454	29,294	603	33,006	32.8	12.7

○ 시사점

- 미래의 소비층인 젊은 층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가 필요
- 일본의 Positive List 시행에 따른 안전성 관리(농약문제) 강화필요
- 인삼의 경우는 예전부터 일본인의 고령층에게 어느정도 몸에 좋다는 인식이 남아있으나 일본인들은 고려인삼이 열을 올리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인식되어있음. 일본의 고혈압환자는 전체의 30%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것임.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적당한 소개가 아니라 연구실적이나 과학적인 증빙자료 제시와 이를 어필할 수 있는 홍보로 일본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